

## 주 안에서 의 문안 -고대 기독교편지의 양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sup>1</sup>

김진옥\*

###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주후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이집트에서 발견된 비문학적(non-literary) 파피루스들 가운데 주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기독교편지들의 표현양식과 그 특징적인 구조에 대한 서간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한 기본텍스트들로 지금까지 학계에 발표된 파피루스 기독교편지들 가운데 비교적 훼손이 덜 되고 연구의 가치가 있는 기독교편지 200 여 편을 선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서 표현양식과 구조를 시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이집트 프톨레미왕조 시대(BC 4-1세기)의 편지 60여 편이 선택되었고,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로마시대(AD 1-3세기)의 이교도들의 편지들과 비교하기 위해 40여 편의 편지들도 연구영역에 포함하였다.<sup>2</sup> 계속해서 기독교편지들의 표현양식을 신약 성경 특히 바울서신들에 나타난 표현들과 비교관찰 함으로써 바울서신들이 가진 독특성 신약성경이 고대 기독교편지들에 미친 영향 및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지금까지 파피루스학(Papyrology)계에서 전개된 기독교편지들의 연구사를 서술하고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강사, 신약신학

<sup>1</sup> 이 글은 필자의 학위논문(C. Kim, *Grüße im Herrn!: Studien zum Stil und zur Struktur der griechischen christlichen Privatbriefe aus Ägypten*, Disser., Trier: 2011)의 내용을 요약 설명한 것이다. 계속해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토대로 고대 기독교서신과 바울서신의 양식과 구조를 비교 연구하고 한국개혁신학회에 발표하였는데(“바울서신과 고대 기독교편지의 특징과 양식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개혁신학회, 2011년 11월 19일, 미발표논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글의 여러 부분을 거기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 글에 사용된 파피루스 출판물(Edition)과 파피루스학적 연구서적들은 John f. Oates, Roger S. Bagnall, Sarah J. Clackson, Alexandra A. O’Brien, Joshua D. Sosin, Terry G. Willfong, and Klaas A. Worp, *Checklist of Greek, Latin, Demotic and Coptic Papyri, Ostraca and Tablets* <<http://scriptorium.lib.duke.edu/papyrus/texts/clist.html>> (2011년 11월) 을 따라 표기하였으며, 연구저널들은 *Année philologique*(Paris) 를 따랐다.

<sup>2</sup> Kim, 16-26.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텍스트들의 출처를 기술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발견되어지는 기독교편지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들을 연구하고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nomina sacra*,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들, 그 당시 유행하였던 표식들, 성직자들(감독, 장로, 집사)에 대한 언급, 수도원과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성경의 인용 등에 대한 관찰과 연구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장은 선택된 기독교편지들의 구조에 대한 연구에 할애하였다. 고대 기독교편지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 문안과 인사의 형태에서 발견된다. 고대 기독교편지들에서는 첫인사와 끝인사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과 안부에 대한 문안인사(*formula valetudinis*) 그리고 로마서 16 장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안하노라”-형식의 인사(*salutatio*)를 자주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편지들의 구조적인 특징들을 감안하여서 연구를 위해 선택된 기독교편지들을 언급된 인사들의 배열과 구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대표적인 몇 가지 편지들의 구조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편지들을 구성하는 인사들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도식화 한 후에 문헌학(philology)적인 혹은 서간학(epistolography)적인 방법을 통해 설명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고대시대의 기독교편지를 재구성하여 표본적인 기독교편지를 작성하였다.

## 2. 고대 기독교편지의 일반적 특징

현재까지 파피루스를 통해서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들이 차지하는 양도 적지 않다. 기독교편지에 대한 연구는 먼저 20세기 초 소수의 이탈리아 학자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들은 수많은 파피루스들 가운데 기독교편지들을 구분해 내고 그 구분의 방법과 근거를 선구자적으로 제시하고 또 체계화 하였다.<sup>3</sup> 일반적으로 기독교편지를 일반 편지로부터 분류하는 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단어, 거룩한 칭호(*nomina sacra* 혹은 *nomen sacrum*) 여러가지 상징들, 성구 인용, 기독교인의 이름, 교회의 직분들과 기독교적인 칭호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 고대 기독교편지를 바울서신과 비교하는 데 의미있는 몇 가지 만 살펴보고자 한다.

### 2.1. 기독교적인 단어들

편지에 쓰여진 단어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성격을 질게 드러낼 수 있는 성경적인 단어들이 기독교편지의 특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편지로부터 기독교적인 편지를 분류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sup>3</sup> G. Ghedini, *Lettere cristiane dai papiri greci del III e IV secolo* (Milano: 1923), 1-43; M. Naldini, *Il cristianesimo in Egitto: Lettere private nei papiri dei secoli II-VI* (Firenze: 1968), 1-59; G. Tibiletti, *Le lettere private nei papiri greci del III e IV secolo d.C.: tra paganesimo e cristianesimo = Scienze filologiche e letteratura* 15 (Milan: 1979), 86ff.; J. O'Callaghan, *Cartas cristianas griegas del siglo V* (Barcelona: 1963), 23ff.; H.-A. Rupprecht, *Kleine Einführung in die Papyrskunde* (Darmstadt: 1994), 191ff.; O. Montevecchi, *La Papirologia* (Milano: 1988), 285-95; D.G. Martinez, *The Papyri and Early Christianity. The Oxford Handbook of Papyrology* R.S. Bagnall, ed. (Oxford: 2009), 590ff.

첫째,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다.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칭호들이 기독편지에서 발견된다. 그 중 ‘하나님(θεός)’ 과 ‘주(κύριος)’가 가장 빈번하게 기독편지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칭호들은 일반인들의 편지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sup>4</sup> 이 외에도 ‘예수(Ἰησοῦς)’ 나 ‘그리스도(Χριστός)’ 도 편지들에 등장하며, 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 편지들이 기독편지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3, 4세기 편지들에서 이 두 단어는 박해의 영향으로 매우 극소수 만이 발견되고 있다.<sup>5</sup> 반면 5 세기 이후의 문서들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둘째, 기독교의 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대표적으로 ‘사랑’, ‘기도’, ‘믿음’, ‘소망’ 등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고대 기독편지들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특히 ‘사랑(ἀγάπη)’의 형용사적 형태인 ‘사랑하는(ἀγαπητός)’<sup>6</sup> 는 고대 기독편지에서 수신자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였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형제(ἀγαπητός ἀδελφός)’<sup>7</sup> 는 기독편지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며, 신약성경에도 자주 등장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ἀγαπητοί)’<sup>8</sup> 와 ‘사랑하는 자여(ἀγαπητέ, 요삼 1:3)’, ‘사랑하는 아들 디모테에게(Τιμοθέῳ ἀγαπητῷ τέκνῳ, 딤후 1:2)’, ‘사랑하는 가이오에게(Γαίῳ τῷ ἀγαπητῷ, 요삼 1:1).’ “ “ “

셋째,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언급이 고대 기독편지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감독(ἐπίσκοπος)’, ‘장로(πρεσβύτερος)’, 그리고 ‘집사(διάκονος)’가 여기에 해당한다. ‘감독’에 대한 언급은 4세기 초 발견된 기독편지들 가운데 등장하며 (P.Lond. VI 1913, 4, 1914, 7, 8, 27, 42, 47, 49)<sup>9</sup>, 계속해서 이 명칭은 비잔틴시대 끝날 때까지 기독편지들에 나타나며 항상 지역교회의 명칭과 함께 사용되었다.<sup>10</sup>

넷째, 수도원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기독교가 고대 근동에 전파되어 나가면서 새로운 기독교적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 전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수도원들이 여러 지역에 정착하고 또 확장되면서<sup>11</sup> 이것과 관련된 용어들이 생겨났던

<sup>4</sup> θεός 와 κύριος 는 기독교 외의 개인 편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sup>5</sup> P.Lond. VI 1917, 2; P.Lond. VI 1927, 1; SB VI 9605, 5; SB XIV 11532, 11.

<sup>6</sup> “However, the adjective ἀγαπητός, ‘beloved’ appears to b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Christianity. In documentary texts (where it is not used substantively) it qualifies most commonly the nouns ‘brother’ or ‘sister’ (ἀδελφός / ἀδελφή), as well as ‘child’ (τέκνον), ‘son’ (υἱός), ‘father’ (πατήρ), ‘lord’ (κύριος) and the terms for Christian leaders πάπας and ἄπα.”: M. Choat, *Belief and Cult in Fourth-Century Papyri*, *Studia Antiqua Australiensia* I (2006), 89.

<sup>7</sup> Choat, 90ff.

<sup>8</sup> 신약에서 등장하는 ἀγαπητός 의 호격형태: 롬 12:19; 고전 10:14, 12:14; 고후 7:1, 12:19; 빌 2:12, 4:16; 히 6:9; 뱀전 2:11, 4:12; 뱀후 3:1, 8, 14, 17; 요일 2:7, 3:21.

<sup>9</sup> G. Schmelz, *Kirchliche Amtsträger im spätantiken Ägypten nach den Aussagen der griechischen und koptischen Papyri und Ostraka*, *Archiv für Papyrusforschung und verwandte Gebiete*, APF Beiheft 13 (München-Leipzig: 2002), 33: “Schon im 4. Jh. findet sich in Ägypten eine voll ausgeprägte Hierarchie von kirchlichen Ämtern und Institutionen, die sich im 3. Jh., d.h. vor der Konstantinischen Wende und trotz mehrerer Christenverfolgungen, entwickelt haben muss und die auch im bewegten Gang der Kirchengeschichte der folgenden Zeit stabil blieb.”

<sup>10</sup> τῆς καθολικῆς ἐκκλησίας τῆς ὑπὸ Πλουσιανὸν ἐπιτιμώτατον ἐπίσκοπον (P.Lips. I 43 – 주후 4 세기); Κύριος θεοφιλέστατος ἐπίσκοπος τῆς καθολικῆς Λυκοπολιτῶν ἀγίας τοῦ θεοῦ ἐκκλησίας (P.Princ. II 82 – 주후 5세기), θεοφιλεστάτῳ ἀββῶ Παύλῳ ἐπισκόπῳ τῆς ἀγίας καὶ μεγάλης ἐκκλησίας ταύτης τῆς Ἡρακλεοπολιτῶν μητροπόλεως (SB VIII 9876 – 주후 6세기) und ✠ παρὰ τῆς ἀγίας ἐκκλησίας διὰ τοῦ ὀσιωτάτου Ἰωάννου ἐπισκόπου (SB XII 10808 – 주후 7세기).

<sup>11</sup> Schmelz, 27f.: “Um die Wende vom dritten zum vierten Jahrhundert entstand in Ägypten aus asketischen Lebensformen innerhalb der Gemeinden das Mönchtum. Antonius und viele andere, die seinem Vorbild folgten, lebten als Einsiedler (Anachoreten) an den Wüstenrändern, Pachomius organisierte mit seiner Mönchsregel das Zusammenleben im Kloster unter der Führung eines Abtes

것이다. 이 가운데 수도원을 뜻하는  $\mu\omicron\nu\eta$  와  $\mu\omicron\nu\alpha\sigma\tau\eta\rho\iota\omicron\nu$ ,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도자 혹은 성직자를 뜻하는  $\mu\omicron\nu\alpha\chi\acute{o}\varsigma$ ,  $\acute{\alpha}\nu\alpha\chi\omega\rho\eta\tau\eta\varsigma$  (P.Herm. 7, 21; PSI VIII 1953, 5, 27),  $\acute{\alpha}\pi\omicron\tau\alpha\kappa\tau\iota\kappa\acute{o}\varsigma$  (P.Herm. 9, 2), 그리고 성경봉독자를 지칭하는  $\acute{\alpha}\nu\alpha\gamma\nu\acute{o}\sigma\tau\eta\varsigma$  (P.Amh. I 3, Kol. III, 6; P.Ant. II 93, 6; P.Neph. 12, 11) 가 기독편지들에 비교적 빈번하게 등장한다.

## 2.2. 거룩한 칭호(*nomina sacra*)

‘*nomina sacra*’ 라는 용어는 1906년 L. Traube 에 의하여 고대 기독교 사료들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기술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sup>12</sup> 이를 통해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중요한 단어의 철자들이 축약되고 그 위에는 단축되었음을 표시하는 줄이 그어졌다.<sup>13</sup> 지금까지 발견된 기독교 사료들 가운데 총 15 개의 단어들이 ‘*nomina sacra*’ 의 표기법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 $\theta\epsilon\acute{o}\varsigma$ ), 주(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 영( $\pi\nu\epsilon\acute{\upsilon}\mu\alpha$ ), 아버지( $\pi\alpha\tau\eta\rho$ ), 하늘( $\omicron\upsilon\rho\alpha\nu\acute{o}\varsigma$ ), 인자( $\acute{\alpha}\nu\theta\rho\omega\pi\omicron\varsigma$ ), 다윗( $\Delta\alpha\upsilon\iota\delta$ ), 이스라엘( $\text{Ἰσραήλ}$ ), 예루살렘( $\text{Ἱερουσαλήμ}$ ), 예수( $\text{Ἰησοῦς}$ ), 그리스도( $\text{Χριστός}$ ), 아들( $\upsilon\iota\acute{o}\varsigma$ ), 구원자( $\sigma\omega\tau\eta\rho$ ), 십자가( $\sigma\tau\alpha\upsilon\rho\acute{\rho}\omicron\varsigma$ ), 어머니( $\mu\eta\tau\eta\rho$ ).<sup>14</sup> 이러한 표기 방식은 주로 성경의 필사본 같은 기독교적 문학 사료에서 자주 발견되어진다.<sup>15</sup> 그러나 관공문서, 계약서, 영수증 등과 같은 사료에서는 ‘거룩한 칭호(*nomina sacra*)’ 는 자주 등장하지 않고, 주로 기독편지들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신( $\theta\epsilon\acute{o}\varsigma$ )과 주(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라는 표현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이교적인 편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축약적인 기입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주(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는 ‘주 사라피스와 함께/에게 ( $\pi\alpha\rho\acute{\alpha}\ \tau\acute{\omega}\ \kappa\upsilon\rho\iota\acute{\omega}\ \text{Σαράπιδι}$ )’ 같은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적인 이교적 표현에서 축약된다거나 윗줄이 그어진 형태로 쓰이지 않았다.<sup>16</sup> 그러나 기독편지에서 주( $\kappa\acute{\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 가 ‘주 하나님’을 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칭호(*nomina sacra* 혹은 *nomen sacrum*)’의 방식을 통해서 쓰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방식은 기독편지 안에서 성경의 필사본들에서 쓰여진 것과 같 이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쓰이지 않았으며, 약간의 예외도 발견된다.<sup>17</sup> 예를 들자면, ‘주 하나님과 함께( $\pi\alpha\rho\acute{\alpha}\ \tau\acute{\omega}\ \kappa\upsilon\rho\iota\acute{\omega}\ \theta\epsilon\acute{o}\omega$ )’라는 표현은

(Koinobiten).”; B. Kramer, J.C. Shelton and G.M. Browne, *Das Archiv des Nephros und verwandte Texte* (Mainz: 1987) = P. Neph., 11ff.; Rupprecht, 91f.

<sup>12</sup> *nomina sacra* 의 심층 연구를 위해서는 Traube 와 Paap 를 보라: L. Traube, *nomina sacra* (München: 1906); A.H.R.E. Paap, *Nomina sacra in the Greek Papyri of the first five Centuries A.D.* (Lugdunum Batavorum: 1959).

<sup>13</sup> Rupprecht, 192; L. W. Hurtado, *The Earliest Christian Artifacts: Manuscripts and Christian Origins* (Grand Rapids-Cambridge: 2006), 96: “As we will note shortly, however, in some early manuscripts the name of Jesus is abbreviated by “suspension”, this particular *nomina sacra* form comprised of the first two letters, IH. Also, however they are abbreviated, with very few exceptions there is a horizontal stroke written just above the *nomina sacra* forms of all the words in question.”

<sup>14</sup> C.H. Roberts, *Manuscript, Society and Belief in Early Christian in Egypt* (1977), 26; P.Lugd.Bat. III. 119; Hurtado, 106, 134.

<sup>15</sup> Montevicchi, 287f.

<sup>16</sup> 기독인들만이 *nomina sacra* 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cf. Choat, 122f.: “As with many of the other criteria of Christian authorship discussed above, Manichaean usage again can be detected, in both a literary and documentary context. Rees long ago warned against undue haste in automatically accepting *nomina sacra* as emanating from Christians, suggesting that Jews may have used *nomina Sacra*. Such cases do exist, such as the appearance of  $\bar{\kappa}\omega$  and  $\bar{\iota}\sigma\lambda$  (Israel) in texts from the Cairo Geniza (VH 74, Kings in the vision of Aquila, dated to the fifth or sixth century).”

<sup>17</sup> Hurtado, 96f; A. Luijendijk, *Greetings in the Lord: Early Christians and the Oxyrhynchus Papyri*. *Harvard Theological Studies* 60 (2008), 62ff.

발견되는 파피루스의 편지들마다 조금씩 축약의 방식이 다르다:  $\text{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XII 1495, 4);  $\text{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XII 1493, 4);  $\text{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XXXI 2601, 5);  $\text{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SB XII 10841, 3).<sup>18</sup>

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관용구에서 ‘하나님의 칭호’는 늘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생략되었다:  $\text{ἐν Κ(υρίῳ)}$ <sup>19</sup> 와  $\text{ἐν Κ(υρίῳ) Θ(ε)ῷ}$ .<sup>20</sup>

### 2.3. 십자가 상징과 숫자 상징

고대 편지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독교적인 특징들은 십자가 상징들이다. 이러한 십자가 상징들은 4세기 말부터 자주 편지들에 등장하였다. 십자가 상징들은 다음의 여러가지 형태로 발견되어진다.

Kreuzgramm:	⊕, †	
Christogramm:	✝	= Χρ(ιστός)
Staurogramm:	† <sup>21</sup> , †̅̅̅	= στ(αυ)ρ(ό)ς

이들 외에도 기독교편지에는 자주 숫자상징(Isopsephismen)들이 등장한다:  $\chi\mu\gamma$ ,  $\rho\theta$  ( $99 = \alpha\mu\eta\nu = 1 + 40 + 8 + 50$ ). 이 상징들의 연구에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rho\theta$  가  $\alpha\mu\eta\nu$  을 뜻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 상징 보다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chi\mu\gamma$  의 해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소 비밀스러워 보이는 이 글자들의 해독에서 네가지 가능성들이 제기된다: 1. ἡ ἁγία τριάς θεός; 2. Χ(ριστόν) Μ(αρία) Γ(έννα)<sup>22</sup>; 3. Χ(ριστοῦ) Μ(αρία) Γ(έννα); 4. Χριστός Μιχαήλ Γαβριήλ.<sup>23</sup>

파피루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략 밑의 세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1. 개인적인 기독교편지에서 개인의 경건과 신앙을 표현:

예)  $\chi\mu\gamma \dagger \rho\theta$  κυρίως μου τιμωτάτοις (P.Oxy. LVI 3862, 1).

2. 행정 문서에 교회의 공신력을 표현:

예)  $\chi\mu\gamma \text{✝}$  λό(γος) τῷ κυρίῳ) Γεωργίῳ, οὔ(τως) (P.Oxy. XVI 2053, 1).

3. 미신적인 관행을 따라 치유의 기도문에 등장:

예)  $\alpha\text{†}\omega$  (P.Amst I 26, 1);  $\dagger$  (P.Oxy. VI 925, 1);  $\text{X}\text{M}\text{Γ}$  (SB XVI 12658, 1).

<sup>18</sup> 문장 안에 표기된 둥근 괄호는 파피루스학에서 보통 그 안의 글자들이 원본에서 생략되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다. cf. G.H.R. Horsley, ed. *New Documents Illustrating Early Christianity* 3 (1978), 155.

<sup>19</sup> P.Abinn. 7, 2, 8, 2; P.Alex. 29, 1; P.Giss. I 55, 2, 103, 3; P.Grenf. II 73, 3; P.Gron. 17, 2; P.Laur. IV 190, 2; P.Lond. III 981, 3, V 1658, 2, VI 1915, 2, 1919, 3; P.Neph. 1, 3, 9, 3, 13, 2, 18, 4; P.Oxy. LVI 3858, 3, LIX 4127, 4; P.Prag. I 100, 3; P.Princ. II 104, 5; PSI III 208, 1; PSI IX 1041, 1; SB III 7269, 1, VIII 9746, 2, X 10255, 3; XVI 12304, 3.

<sup>20</sup> P.Herm. 8, 3; P.Lond. VI 1925, 2, VI 1929, 2; P.Neph. 10, 2; P.Oxy. VIII 1162, 4, X 1300, 2, LVI 3862, 4.

<sup>21</sup> A. Papatomas, *Fünfunddreissig griechische Papyrusbriefe aus der Spätantike* (München-Leipzig: 2006) = CPR XXV 15, 9; Naldini, 23-27.

<sup>22</sup> J.O. Tjäder, *Christ our Lord, Born of Virgin Mary*, *Eranos* 67 (1970), 148-190.

<sup>23</sup> Naldini, 28ff; T. Derda, *Some Remarks on the Christian Symbol XMG*, *JJP* 22 (1992), 21-27; Rupprecht, 193; Choat, 114ff.

## 2.4. 성경의 인용

기독교편지 가운데 성경의 인용은 빈번하지 않지만, 이는 편지의 기독교적인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선별요인 중의 하나이다. 성경의 인용은 구약(*septuaginta*) 보다 신약이 더 빈번하며,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신약이 공동체 교육에서 더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sup>24</sup>

고대 기독교편지의 성경인용은 Naldini 와 Tibilietti 를 통해서 처음 연구가 되어졌고, 그 후에 Horsley 가, 가장 최근에는 Choat 가 연구하였다.<sup>25</sup> 파피루스에 쓰여진 기독교편지의 성경인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인용문들이 ‘문자적인 인용 (*verbatim copy*)’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26</sup> 중요한 점은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성직자, 혹은 감독과 같은 교회 직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Gron. 17, 14-15; P.Harr. I 107, 4-7; P.Oxy. VIII 1161, 1-7; P.Neph. 4, 6; SB XIV 11532, 11.<sup>27</sup>

### • 기독교편지에 나타난 성경인용

	기독교편지(Papyri)	인용구절(LXX 와 NT)	
P.Abinn. 19, 8-10	[ ... πο]τ[ή]ριον ὕδατος ἐγὶ τῶν [μικ]ρῶν [τ]ούτων οὐκ ἀπολεῖ τὸν [μ]ισθὸν ἑαυτοῦ.	καὶ ὃς ἂν ποτίσῃ ἓνα τῶν μικρῶν τούτων ποτήριον ψυχροῦ μόνον εἰς ὄνομα μαθητοῦ,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οὐ μὴ ἀπολέσῃ τὸν μισθὸν αὐτοῦ.	Mt. 10, 42
P.Heid. I 6, 7-10	ἵνα οὖν μὴ πολλὰ γράφω καὶ φλυαρήσω, ἐν γὰρ [πο]λλῇ λαλιᾷ οὐκ ἐκφεύζοντ[αι] αἱ ἁμαρτίαι,	ἐκ πολυλογίας οὐκ ἐκφεύξῃ ἁμαρτίαν, φειδόμενος δὲ χειλέων νοήμων ἔση.	Spr. 10, 19
P.Iand. II 14, 3-4	[εὐ]χομαι τῷ ἐν ὑψίσ[τ]ῳ θεῷ περὶ [τῆς] ὀλοκληρίας σου.	καὶ νῦν ἴδου ἐν οὐρανοῖς ὁ μάρτυς μου, ὁ δὲ συνίστωρ μου ἐν ὑψίστοις / δόξα ἐν ὑψίστοις θεῷ καὶ ἐπὶ γῆς εἰρήνη ἐν ἀνθρώποις εὐδοκίας.	Hio. 16, 19 /Lu. 2, 14
P.Köln IV 200,	ἐχρήσατο [ὁ] ἄγγελος τοῦ θεοῦ μο[υ] ὁ ῥυσάμεν[ός] με [ἐ]κ	ὁ ἄγγελος ὁ ῥυόμενός με ἐκ πάντων τῶν κακῶν εὐλογῆσαι τὰ	1Mo. 48, 16

<sup>24</sup> P.Köln IV 200, 214: “Der Grund für die weit üblichere Verwendung von Zitaten aus dem Neuen Testament dürfte darin zu finden sein, daß die religiöse Erziehung mehr auf dem Studium des NT als des AT beruhte (vgl. Naldini, 54-55).”

<sup>25</sup> B. Kramer, 70; Tibilietti, 115-116; New Docs II (1977), 157-158; Choat, 74ff; B.F.Harris, *Biblical Echoes and Reminiscences in Christian Papyri, Proceedings of the XIV International Congress of Papyrologists* (London: 1975), 155-160.

<sup>26</sup> Choat, 77f.: “True quotation is rare, and many instances owes more to the imaginations of editors or commentators than to the composer’s intentions. An introductory clause indentifying the phrase as that of an apostle or from Scripture removes any doubt, even if the textual allusion cannot be now identified. At times the phraseology is sufficiently close to a known text virtually to guarantee a citation; in others resemblance is certainly coincidental. The use of a phrase, concept, or a single word which is also found in a sacred text does not in itself guarantee that the writer had read or even heard of the text which is supposedly consciously alluded to.”

<sup>27</sup> R.S. Bagnall, *Early Christian Books in Egypt* (Princeton - Oxford: 2009), 17ff., 70ff.

3-5	πάντων τῶν κακῶν μου.	παιδιά ταῦτα,	
P.Lond. III 981, 4-7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ἐν τῇ γραφῇ ὅτι μακάριοί εἰσιν οἱ ἔχοντες σπέρμα ἐν Σιών, τὰ νῦν ἡμεῖς ἐσμεν,	Τάδε λέγει κύριος Μακάριος ὃς ἔχει ἐν Σίῳ σπέρμα καὶ οἰκείους ἐν Ἱερουσαλημ.	Jes. 31, 9b
P.Lond. VI 1927, 44-47	τὸν καιρ[ὸ]ν γὰρ ἐξαγοράζ[ο]ντες, κηρύττει ὁ τρισμακάριος ἀπόστολ[ο]ς, ὅτι αἱ ἡμέραι πονηραὶ εἰσιν.	ἐξαγοραζόμενοι τὸν καιρόν, ὅτι αἱ ἡμέραι πονηραὶ εἰσιν.	Eph. 5, 16
P.Lond. VI 1928, 12-13	ἐν θλίψει ἐπεκαλεσάμην καὶ εἰσήκουσεν μου. νῦν ἀληθῶς θλίψις ἐν ἡ εἰμί	ἐν θλίψει ἐπεκαλεσάμην τὸν κύριον, καὶ ἐπήκουσέν μου εἰς πλατυσμόν./ καὶ εἶπεν Ἐβόησα ἐν θλίψει μου πρὸς κύριον τὸν θεόν μου, καὶ εἰσήκουσέν μου· ἐκ κοιλίας ἄδου κραυγῆς μου ἤκουσας φωνῆς μου.	Ps. 117, 5 /Jon. 2, 3
P.Neph. 4, 30	ἐρρώσθαί [σε εὔχομαι,] ἄνθρ' ὡ' πε [θεοῦ.]	Σὺ δέ, ὦ ἄνθρωπε θεοῦ, ταῦτα φεύγε· δίωκε δὲ δικαιοσύνην	1Ti. 6, 11
P.Neph. 11, 6-7	πιστὸν ἠγησάμην καὶ πάσης ἀποδοχῆς ἄξι' ὄν πρωτοτύπως προσειπεῖν ὑμῶν τὴν ἐν θ(ε)ῷ διάθεσιν,	πιστὸς ὁ λόγος καὶ πάσης ἀποδοχῆς ἄξιος	1Ti. 1, 15
P.Oxy. VIII 1161, 4-7	ὅπως οὗτοι πάντες β[ο]ηθήσω-σιν ἡμῶν τῷ σώματι, τῇ ψυχῇ, τῷ πν(εύματ)ι.	Αὐτὸς δὲ ὁ θεὸς τῆς εἰρήνης ἀγιάσαι ὑμᾶς ὀλοτελεῖς, καὶ ὀλόκληρον ὑμῶν τὸ πνεῦμα καὶ ἡ ψυχὴ καὶ τὸ σῶμα ... .	1Th. 5, 23
P.Oxy. XXXI 2603, 28-29	ἰδ[ί]οι 'τυγχάνουσι', καὶ εἶ τι αὐτοῖς ποιεῖς ἐμο[ῖ] ἐποίησας.	ἐφ' ὅσον ἐποιήσατε ἐνὶ τούτων τῶν ἀδελφῶν μου τῶν ἐλαχίστων, ἐμοὶ ἐποιήσατε.	Mt. 25, 40
SB I 2266, 7-10	πιστεύομεν γὰρ τὴν πολιτείαν σου ἐν οὐρανῷ. <sup>28</sup> ἐκειθεν θεωροῦμέν σε τὸν δεσπότην καὶ καινὸν ἀτρωπο[ν] <sup>29</sup> .	ἡμῶν γὰρ τὸ πολίτευμα ἐν οὐρανοῖς ὑπάρχει, ἐξ οὗ καὶ σωτήρα ἀπεκδεχόμεθα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	Php. 3, 20
SB V 7872, 11-12	δῶν ἔλεος ὁ κ(ύρι)ος τῷ Ὀνησιφόρου οἴκῳ, ὅτι πολλάκις [με ἀνέψυξεν]	δῶν ἔλεος ὁ κύριος τῷ Ὀνησιφόρου οἴκῳ, ὅτι πολλάκις με ἀνέψυξεν καὶ τὴν ἄλυσίν μου οὐκ ἐπαισχύνθη,	2Ti. 1, 16
SB XII 11144, 3-4	κόσ]μον τοῦτον. τὰ γὰρ μωρὰ ἐξελέξατο ὁ θεὸς ἵνα καταισχύνη [...X]ριστόν, ὑμεῖς δὲ φρόνιμοι ἐν Χριστῷ.	ἀλλὰ τὰ μωρὰ τοῦ κόσμου ἐξελέξατο ὁ θεός, ἵνα καταισχύνη τοὺς σοφοὺς	1Kor. 1, 27
SB XIV 11532, 11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πάν-των ὑμῶν]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Ga. 6, 18

<sup>28</sup> cf. P.Lond. VI 1927, 30-31; P.Neph. 14, 7; M. Choat, *Parnouthios in SB I 2266*, ZPE 133 (2000), S. 162; Markelbach, S. 104.

<sup>29</sup> BL IX, S. 236: α<ν>[θ]ρωπ[ον] → α[θ]ρωπ[ον], l. ἄνθρωπον (am Original), P.Neph., S. 70, Anm. 6.

		ὑμῶν, ἀδελφοί· ἀμήν.	/Php. 4, 23
--	--	----------------------	----------------

## 2.5. 존경의 칭호

고대의 기독교편지들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수신자를 높이는 칭호의(Ehrenabstrakta 혹은 Ehrenepitheta) 사용이다. 이렇게 함으로 발신자는 수신자에 대한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며, 동시에 자신을 겸허하게 낮춘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독교편지들에서 이러한 존경의 칭호는 주로 성직자와 관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교회의 직원들인 성직자들의 편지 왕래에서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칭호의 사용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후기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편지들에도 발견된다: 예, P.Harr. I 154, 1: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πολλὰ προσκυνῶ τὴν σὴν ἀδελφότητα.

존경의 칭호는 한 부분(단어)이 아니라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칭호 (Abstraktum); 2. 관사와 함께 오는 2인칭 단수 소유대명사 (ἡ σὴ)<sup>31</sup>나 혹은 복수 소유대명사(ἡ ὑμετέρα)<sup>32</sup>. 이러한 존경의 표현에서는 수신자를 수식하는 2인칭 대명사는 다양한 격을 취한다.<sup>33</sup>

본 논문의 연구자료로 선정된 기독교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칭호 (Abstrakta/Epitheta)는 ‘경건함(θεοσεβεία)’이며, ‘거룩한(ἀγιότης)’, ‘담대함(μεγαλοπρέπεια)’, ‘인애(φιλανθρωπία)’ 등도 자주 발견된다.

### • 존경의 칭호의 사용 실례

θεοσεβεία:<sup>34</sup>

- προηγουμένως εὐχομαι νυκτὸς | καὶ ἡμέρας καταξιούσθαι ὑπὸ τῆς σῆς | θεοσεβείας P.Neph. 4, 3-5
- <ἔγραψα> πρὸς τὴν σὴν θεο|σέβειαν P.Neph. 5, 4-5
- ἐλαίου ξέστας δέκα τῇ ἀσυνκρίτῳ | σου θεοσεβεία ἀπέστειλα P.Neph. 6, 4-5
- ὅτι με καταξιούτε λόγου | τῆς θεοσεβείας ὑμῶν P.Neph. 9, 17
- εὐχαρ[ιστῶ] τῇ σῇ θεοσεβεία {σου} P.Herm. 8, 5
- καὶ αὐτὸς γὰρ τῶ(ν) | ἀγαπώντων τ[ὴν] θεο[σ]έβειάν σου

<sup>30</sup> cf. Kramer-Shelton, Einleitung, 7; 주후 5세기에서 7세기 경의 존경의 칭호에 대한 사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O'Callaghan 을 보라: O'Callaghan, *epitetas*, 93f.

<sup>31</sup> cf. P.Neph. 9-10.

<sup>32</sup> cf. Pappas, *Zeugnis*, 199: “Die aus der profanen Dichtung stammende Konstruktion ἡ σὴ (bzw. ὑμετέρα) + abstraktes Ehrenprädikat (= σύ) wurde sowohl von der literarischen als auch von der dokumentarischen Epistolographie der christlichen Ära übernommen.”

<sup>33</sup> ἡ σὴ μεγαλοπρέπεια ἀγγείλασθαι (P.Harr. I 157, 13); πέμψας μοι γράμματα τῆς σῆς θεοφιλοῦς εὐτεκνίας (P.Fouad. 87, 3); εὐχαρ[ιστῶ] τῇ σῇ θεοσεβεία (P.Herm. 8, 5); ὁ Χρι[στος] --- δοίη τὴν σὴν θεοσέβειαν π[α]ραμένιν ἡμῖν (P.Lond. VI 1929, 3). 때때로 이 표현들은 본동사가 수식하는 전치사들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P.Giss. I 55, 4-5: γράψαι πρ[ὸς] τὴν | σὴν ἀγιότη[α] π[ε]ρὶ Σανσενύτ[ό]ς τινος; SB XXIV 16204, 5-7: κ[α]ὶ [ἀ]ξι[ω]τῶ τῶν ἀμοιβαίων ἡμᾶς | τυγχάνειν παρὰ τῆς | γλ[υ]κ[ύ]τητός σου διὰ τῶν ἐμπιστευσῶν προφάσεων.

<sup>34</sup> cf. O'Callaghan, *epitetas*, 86: “Tracto clerical como el siguiente. Se emplea para nombrar a un abad y otros presbíteros, al abad Menas, a tres probables monjes, a un obispo, al diácono Cornelio, al presbítero Hermodoro y al abd Carisio.”

- τυγχάνει P.Lond. 1925, 16-7
- πρὸς τὴν θεοσέβειάν σου ἀνα[γκαί]ον ἢ[γ]ησάμην προσαγο|ρεῦ- P.Lond. 1925, 3-5  
σαι τὴν εὐλό[βειά]ν σο[υ]
  - ὁ Χρι[στός] --- δοίη τὴν σὴν θεοσέβειαν | παραμένειν ἢ[μῖν] P.Lond. 1929, 3-4  
πολὺν [χ]ρό[νον]
  - μεμνημένος τῶν ἐντολῶν τῆς σῆς | θεοσεβείας μετεπεμψάμην P.Lond. 1924, 3-4
  - εἰδώς σου τὴν ἀγάπη(ν) | καὶ τὴν θεοσέβειαν P.Oxy. 3858, 4-5
  - χάρις τῷ πάντων δεσπότη παρασχόντι ἡμῖν | καιρὸν ἐπιτήδειον P.Lond. 1658, 3-5  
προσεπειν τὴν ἀναμίλλητόν |σου θεοσέβειαν
  - τὴν] | σὴν [θεοσέ]βειαν P.Giss. 55, 7-8
  - διὰ τοῦτο γὰρ ἐδηλώσαμεν |τῇ σῆ θεοσεβεία δ(ιὰ) Παησίου | PSI 1342, 23-25  
τοῦ διακόνου
  - πολλὰ δὲ προ[σ]αγ[ορ]εῦω τὴν σὴν θεοσέβειαν P.Oxy. 1871, 7
  - [βούλο]μαι μὲν καταξιοθῆναι ἀεὶ γράφειν | [τῇ σῆ] θεοσεβεία P.Amh. 145, 4-5
- ἀγιότης:
- παρακαλοῦμεν | τὴν σὴν ἀγιότητα P.Oxy. 3863, 17
  - τῆς γὰ[ρ] σῆς [ἀγι]ότητος το[ῦ]το διατελούσης | ἔστ[α]ι ἡμῖν P.Lond. 1929, 5-6  
ἀπ]αντα[χ]η ὑ]για[ίνει]ν.
- μεγαλοπρέπεια:
- χαρίζεται δὲ ἡμῖν λοιπὸν τὴν ἑαυτῆς ἐπ' ἀνοδὸν | ἡ σὴ μεγαλοπρέ- P.Oxy. 1832, 7-8  
πεια
  - τῆς ὑμετέρας μεγαλοπρε(πειάς) P.Harr. 155, 3
- φιλανθρωπία:<sup>35</sup>
- καὶ νῦν ὑπομνήσαι ὑμῶν τὴν φιλαν|θρωπίαν P.Neph. 1, 6-7
  - ἡ σὴ φιλανθρωπία P.Neph. 4, 6
- ἀδελφότης:<sup>36</sup>
- θελήση οὖν ἡ σὴ ἀδελφότης δεχόμε[νος] P.Strasb. 35, 16-17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πολλὰ προσκυνῶ τὴν σὴν ἀδελφότητα P.Harr. 154, 1

## 2.6. 바울서신과의 비교

상기한 고대 기독교편지의 일반적인 특징과 바울서신을 비교할 때 중요한 유사점은 *nomina sacra* 의 사용이다. *nomina sacra* 의 표기방식은 현재 바울서신의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P<sup>46</sup> 에서도 규칙적으로 발견되며 사본학계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과 더 나아가 거의 모든 신약 사본들에서

<sup>35</sup> cf. Kramer-Shelton, 46: “Anrede für Laien in hohem Rang und den Kaiser; vgl. Dinneen S. 35 u. 109. Häufig wird beispielsweise Abinnäus so angeredet (s. P. Abinn. passim), und zwar immer in der Verbindung δέομαί σου τῆς φιλανθρωπίας und in einem Zusammenhang, in dem diese Eigenschaft dem Adressaten suggeriert werden soll. In diesem Sinne ist die Anrede hier nicht gebraucht. Vgl. auch 1, 6-7. S. auch Naldini Nr. 34, 4-5 m. Anm.; 85,6. 13; O’Callaghan Nr.41, 1 (5./6. Jhdt.); Tibiletti S. 38 u. 128; Zilliacus, Untersuchungen S. 42 und 76; H.I. Bell, *Philanthropia in the Papyri of the Roman Period*, in: *Hommages à Joseph Bidez et Franz Cumont*, Bruxelles 1949, S. 31-37.”

<sup>36</sup> cf. Zilliacus, 65.

발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원본을 필사한 후대의 사본들과의 유사점으로, 사도바울 혹은 그의 대필자가 편지를 쓰는 가운데 직접 이러한 표기 방식을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다만 고대의 많은 대필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약어와 상징들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nomina sacra* 와 같은 윗줄 굵기가 이것들과 함께 대부분 병행되고 있었음을 수많은 파피루스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유사점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몇가지 다른 점들도 발견된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징의 사용이다. P<sup>46</sup> 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바울서신에서는 십자가 상징이나 숫자 상징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ρθ 나 십자가 상징 등이 사본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같은 상징들의 사용은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후대에 첨가가 된 것들로 특히 고대 이집트의 토속종교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시대차에 의한 자연스러운 귀결로, 수도원에 관한 단어들이 바울서신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원은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서신에서 이와 관련한 어휘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3. 고대 기독교편지의 구조

편지를 이루는 일반적 구조와 형식을 고려할 때 고대 기독교편지는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다: 3, 4세기 때 쓰여진 기독교편지와 5-7세기 때 쓰여진 편지이다. 3-4세기에 쓰여진 편지들에서는 이집트 프톨레미왕조(B.C. 4-1세기) 때부터 쓰여진 전통적인 편지의 짜임새, 형식, 그리고 인삿말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된다. 반면 5-7세기의 편지들에서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구조와 형식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편지양식이 등장하였다.<sup>37</sup> 프톨레미시대의 편지양식과 구조는 계속해서 로마시대와 비잔틴시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전통적인 양식은 6세기 이후의 기독교편지들에서도 발견된다.<sup>38</sup> 3-4세기의 편지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 첫인사 (*prescriptio*): ὁ δεῖνα τῷ δεῖνι χαίρειν
- 건강(안녕)의 기원 (*formula valetudinis initialis*):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 본문 (*corpus/body*)
- 개별적 인사 (*salutatio in fine epistularum*<sup>39</sup>): ἀσπάζομαι/προσαγορεύω-Form

<sup>37</sup> J.-L. Fournet, *Esquisse d'une anatomie de la lettre antique tardive d'après les papyrus, Série littéraire et philosophique* 13 (2009), 25ff.

<sup>38</sup> P.Giss. I 55.

<sup>39</sup> F. Ziemann, *De epistularum Graecarum formulis sollemnibus quaestiones selectae* (Halle: 1911), 327: "Salutationes in fine epistularum collocari solent: donec valetudinis formula finalis exstat, ante eam (cfr. supra), postea ante clausulam. Rarius in margine (chr. Oxy. II, 295 : c. a. 35 p. III, 530. BGU II, 423: s. II. p. al.) vel post clausulam (cfr. BGU III, 824 : a. 55/6 p. Lond. III, p. 206 (n. 897) : a. 84 p. : clausula duplex. Fay. 112 : a. 99 p. 123 : c. a. 100 p. 115 : a. 101 p. Tebt. II, 314 : s. II. P., al.) ut postscriptum. Quod pertinet ad earum formam, verbum usitatissimum est ἀσπάζεσθαι = salutare. Sed videmus insequentibus saeculis paulatim ei praecurrere aliud verbum: προσαγορεύω (προσφθέγγομαι): est hoc unum ex exeplis non raris, quae nobis ostendunt, quomodo vox, quae principio eum notione quadam arte coniuncta est, hoc in munere paulatim loco cedat (cfr. supra ὑπόμνημα: βιβλίδιον)."; cf. J.L. White, *Greek Documentary Letter Tradition, Studies in Ancient Letter Writing, Semeia* 22 (1982), 95: "In addition to

- 끝인사 (*clausula*<sup>40</sup>): ἐρρῶ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편지의 첫머리에는 항상 첫인사가 등장한다. 첫인사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항상 등장하며 일반적으로 *χαίρειν* 이라는 동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이어서 발신자가 수신자의 건강과 강건함을 비는 기도문(*formula valetudinis initialis*)이 따라온다. 편지의 몸통에 해당하는 본문은 대부분 이 기도문 후에 위치한다. 발신자의 수신자를 향한 목적과 내용을 적는 편지의 본문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건강을 비는 기도문(*formula valetudinis finalis*)이 프톨레미시대 이래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끝인사 전에 등장했던 이 건강의 기원문의 형태는 3,4 세기 편지들 중에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그 대신 개별적 인사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발신자가 수신자 외에 다른 이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며 다른 이의 이름으로 또 수신자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 이 형식을 통하여 인사를 전달하려고 한다. 로마서 16장에서 보는 반복되는 개별적 인사들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편지는 끝인사를 통해서 종결된다.

상기한 구조는 기독교편지와 비기독교편지의 구분없이 대부분의 고대 편지들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섯 구분의 편지 구조가 항상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편지를 제외한 모든 편지에서 첫인사, 편지본문, 그리고 끝인사는 항상 등장한다.

#### • 예: SB VI 9605

예로 제시하고자 하는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기독교편지는 그 양식과 구조에서 고대 기독교인들의 편지쓰기 전형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Privatbrief (mit einer frühen Nennung Jesu Christi)

A.D. 4세기 초

발견지 불분명

Ed.pr.: H. Metzger, Spätantik-byzantinische Papyri aus der Sammlung Erzherzog Rainer in Wien, Museum Helveticum 18 (1961), 24f. (P.Gr.Vindob. 39838).

Ed.: Naldini, Nr. 53, 231

- L. 1-2 첫인사
- L. 2-8 건강을 비는 기원(*formula valetudinis initialis*)
- L. 8-20 편지몸통(letter body)
- L. 20-24 건강을 비는 기원(*formula valetudinis finalis* 의 변형)
- L. 24-25 개별적 인사
- L. 26 ὁ Θεὸς διαφυλάξει]έν σε – Form
- L. 27-30 끝인사

---

the closing wish for health, the verb, ἀσπάζεσθαι, began to be used in the reign of Augustus and following to express secondary greetings to family members and friends. It is not unusual to see an accumulation of these secondary greetings and, by the second century C.E., the same convention began to be used in the letter opening (White, 1978: 299 and n. 34).”; Ghedini, 12: “Il saluto per il destinatario da parte di parenti odi amici che si trovano presso il mittente, o da parte del mittente per parenti o amici che si trovano presso il destinatario: ἀσπάζομαι (προσαγορεύουσί) σε οἱ σὺν ἐμοί (οὐ simili); ἀσπάζομαι (προσαγορεύω) τοὺς σὺν σοι (οὐ simili).”

<sup>40</sup> Ziemann, 334ff.

- 1 [τῷ δεσπότῃ μου 12Bst. ]  
[χαίρειν.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όμεναι τῷ ὑπ[ίσ]τῳ Θεῷ]  
καὶ τῇ θεῖα προνοίᾳ τοῦ Κυρίου
- 5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νυκτὸς]  
[καὶ ἡμέρας περὶ τῆς ὀλοκλη[ρί]ας]  
ὑμῶν ἅμα τῇ γλυκυτάτῃ μου  
ἀδελφῇ Θεβ[η]ίς. νῦν οὖν γράφω  
ὑμῖν, ἵν' ἰδῆ ἀ[ληθές]<sup>41</sup>. καθὼς ἐξήλθα
- 10 ἀφ' ὑμῶν λέγ[ον]τες, ὅτι αὐτῆς  
ὥρας, εἰὰν κατα[λ]άβω τὸν ἀδε[λφόν]  
μου Κοπρέαν, πέμπω αὐτὸν  
ἄνω, ἐξήλθα δέ. εὔρον τὸν ν[οσ]ο[ῦν]-  
τα, καὶ διὰ τοι[ῦ]το οὐχ εὔρο[ν ἀ]-
- 15 ναπέμψε. εὐχαριστῶ δὲ τῷ Θεῷ  
καλῶς ἔσχεν. ἐὰν εὔ[ρο]μεν τὴν  
εὐκηρί[αν . . . . .], πέμπω  
αὐτὸν μ[όνον]. Ὀλοκλη]ρούμην  
[ . . . . . τὸ φαρμ]ακοθὲν ἀπόσ-
- 20 τίλόν μοι . . . . .] περὶ τῆς ὀλοκλη-  
[ρία]ς ὑμ[ῶν] γράφε εἰς τὴν ἀμερι-  
[μνίαν ἡμ]ῶν καὶ δήλωσο[ν]  
[ἐν τάχει, ἵν' εἰδῶ]μεν ἡμῖς τὰ ἴ[ . . . ]  
[ . . . . . πλει]στα. ὑμᾶς πολλὰ
- 25 [ἀσπάζ]εται Κ]οπρέας αὐτός.  
[ὁ Θεὸς διαφυλά]ξει ἐν σε Ἀπα[μίας].  
ἐρρῶσθ[α]ι  
ἡμᾶς εὐχόμε[αι]  
πολλοῖς [χ]ρόν[οις]
- 30 διὰ βίου.

3 l. ὑψίστῳ 5 l. Χριστοῦ 8 l. Θεβ . [ . ]ς (viell. Θεβα[ί]ς): von Naldini, S. 233 (BL VI S. 156) 9 l. ἵν' ἰδῆδ . [ . ]σι, ἐξήλθαμεν 10 l. λέγ[ον]τες 14-15 l. τοῦτο, ἀ]ναπέμψαι 16 l. εὔρομεν 17 l. .. πέμπω, ευκαιρι[αν] 18 l. μ[ - 10 - ] ρουμην 19 l. - ]ακοθεν 21 l. ὑμ[ῶν] . . . . . ] .. ηντην 23-24 l. ἡμῖς τὰ ἴ... | [--].τε (vgl. B.L. 6) ὑμᾶς → ἡ μήτηρ μο[υ] | καὶ ὑμῶν ἀσπάζε[τε] (l. -ται) ὑμᾶς (die Erg. [ἀσπάζεται in Z. 25 ist dann zu streichen) 23 l. [- -]μεν 24 l. [- -]τε ὑμᾶς 26 l. [- -]ενσι, απα[ 28 l. ὑμᾶς

• 번역:

나의 주 NN 에게 NN 이 문안합니다(L. 1-2, 첫인사).<sup>42</sup>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는 누이 테베이스와 함께 높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예지에 의탁하여

<sup>41</sup> cf. BL V, S 117: "Die Richtigkeit der Lesung ἀ[ληθές] wird in Zweifel gezogen: doch eher δ als α, C. Préaux, Chr. d'Ég. 36 (1961), 408."

<sup>42</sup> 사실 이 편지의 첫 부분은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지만, 이를 H. Metzger 박사가 비잔틴 시대의 편지쓰기 양식을 따라 복원하였다.

밤과 낮으로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 기원합니다(L. 2-8, 건강의 기원). 이제 내가 당신들께 편지를 쓰는 것은 진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의 작별에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제 코프레아스를 만나면, 당신들께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멀리 떠나와, 병든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있어 당신들께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는 곧 회복이 되었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고 ... (과피루스 손상) 나에게 약품을 보내 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능한 한 빨리 편지를 써 주세요, 우리가 .... 알 수 있도록 .... (L. 8-20, 본문) 코프레아 자신도 당신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L. 24-25, 개별적 인사). 아파미오스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L. 26, Θεὸς διαφυλάττει - Form). 당신들께서 여러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L. 27-30, 끝인사).

## 4. 구조 분석

### 4.1. 첫인사

첫인사는 고대편지의 기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고대 편지의 첫인사에는 항상 발신자와 수신자가 등장하며 첫인사의 특징적인 인사말인 *χαίρειν* 이 첫인사의 끝에 위치한다. 이 같은 첫인사의 형태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개인 편지로부터 비잔틴시대의 편지까지 발견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첫인사 형식의 점차적인 변화도 발견된다. 3세기와 4세기 사이에 발견되는 기독교편지에서 이 첫인사의 중요성은 더 뚜렷하다; 이 시기의 첫인사는 많은 수식어와 관용구 혹은 전치사구를 동반하며 복잡하며 그 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경향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첫인사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다.

첫인사의 기본구조는 전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부정사(절대적 용법) *χαίρειν*. 고대 기독교편지들에서는 수신자가 주로 처음에 등장한다.<sup>43</sup> 이 반대의 경우로 발신자가 먼저 오기도 하며, 발신자를 전치사구(*παρὰ τοῦ δέινος*)로 전환하여 나타날 때도 있다.

첫인사에서 발신자는 비교적 간단하게 표기되는 반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칭호들과 미사여구로 꾸며진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편지에서는 수신자를 수식하는 여러 꾸미는 칭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은 '나의 주(*κύριός μου, δεσπότης μου*)' 와 '사랑하는(*ἀγαπητός*)'의 표현이다.

첫인사에서 중요한 단어인 *χαίρειν* 은 일반적으로 인사의 끝에 위치한다.<sup>44</sup> 프톨레미시대에는 여기에 더하여 또 다른 부가적 문장이 첨가되기도 하였다: *καὶ*

<sup>43</sup> F.J. Exler, *The Form of the Ancient Greek Letter of the Epistolary Papyri (3rd c. B.C. - 3rd c. A.D.): A Study in Greek Epistolography*, Washington 1923, 23, "The basic type of the opening phrase in the Greek letter is expressed by the formula: A— to B— *χαίρειν*. A stands for the writer or addressant, B for the addressee. Almost every possible variation of this type occurs, the principal variant being: To B— from A—, usually without the addition of Salutation. It will be observed that the formula: A— to B— *χαίρειν*, occurs quite frequently in familiar letters, business letters, and official communications. The formula To B— from A—, is usually employed in petitions, complaints, and applications."

<sup>44</sup> Mayser II<sup>3</sup>, 5f; H.G. Meecham, *Light from Ancient Letters, Private Correspondence in the Non-Literary Papyri of Oxyrhynchus of the First four Centuries, and its Bearing on New Testament Language and Thought*, London-New York 1923, 116.

ἐρῶσθαι 혹은 ὑγιαίνειν.<sup>45</sup> 그러나 기독교편지 가운데서는 이러한 부가절은 발견되지 않는다. χαίρειν 은 빈번하게 첫인사에서 생략된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첫인사에서 χαίρειν 을 항상 생략하였다. 때로는 χαίρε 와 εὖ πράττειν 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기독교편지 가운데 발견되다.<sup>46</sup> 간헐적으로 χαίρειν 의 변형된 형태(optativ: χαίροις)<sup>47</sup>가 편지들 가운데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독교편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상기한 기본적인 세 부분 외에 첫인사에서 부사구 혹은 전치사구가 자주 동반된다. 이 부사구들은 항상 끝의 부정사 앞에 위치하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부사(어)구는 ἐν κυρίῳ 와 πολλά (πλείστα) 이다.

• 첫인사의 구조분석

빈도	첫인사의 구조		
20/133	ὁ δεῖνα	τῷ δεῖνι	χαίρειν
71/133	τῷ δεῖνι	ὁ δεῖνα	
4/133	τῷ δεῖνι	παρὰ τοῦ δεῖνος	
8/133	χαίρε	δεῖνε	σὲ προσαγορεύω
4/133	τῷ δεῖνι	ὁ δεῖνα	εὖ πράττειν
23/131	τῷ δεῖνι	ὁ δεῖνα	—

발신자(ὁ δεῖνα)를 항상 앞에 놓는 것은 바울서신이 가진 특징이다. 이렇게 함으로 사도 바울은 보내는 자신이 누구인가 먼저 수신자들 앞에 소개하고 있다. 바울서신 전체를 놓고 보자면 사도는 첫인사의 구성에서 항상 χαίρειν 을 생략하고 있으며, 발신자 후 수신자의 순서를 항상 지키고 있다. 바울서신의 첫인사가 가진 중요한 특징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인사를 전하는 그 본연의 목적 외에 사도가 여러 방면으로 첫인사의 지면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바울은 교리적인 또는 신학적인 첫인사를 편지들 마다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의 긴 첫인사에서 바울은 선택 교리와 기독교론, 구원론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4.2. 건강을 비는 기원문(formula valetudinis initialis)

첫인사 후에는 때때로 건강과 수신자의 안녕을 비는 기원문이 온다. 이 구문을 일컫는 라틴어 명칭이 뜻하듯이 이 구문은 편지의 본문 앞에서 수신자의 건강이나 회복을 빌기 위해 사용된다. 이 형식을 통해서 발신자의 수신자의 건강과 복에 대한 기원과 소망은

<sup>45</sup> R. Buzón, *Die Briefe der Ptolemäerzeit, Ihre Struktur und ihre Formeln*, Dissert. Heidelberg 1984, 9, “Diese Erweiterung des Grußes χαίρειν findet sich nur einmal in den Briefen des 3. Jahrh. (P. Haun 10); sie tritt erst häufiger seit der zweiten Hälfte des 2. Jahrh. v. Chr. auf.”  
<sup>46</sup> χαίρε ἐν κ(υρίῳ) ἀγαπητὲ πάπα | Σώτα πρεσβ(ύτερε) Ἡρακλέους | πολλά σε προσαγορεύομεν (P.Oxy. 2785, 1-3); [τῷ κυρίῳ μου ἀδελφῷ | [Εὐδαί]μονι Σεουήρος | εὖ πράττειν (P.Princ. 101, 1-3).  
<sup>47</sup> Exler, 53.

표현된다: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καὶ ὀλοκληρεῖν. 프톨레미시대부터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 건강의 기원문은 세기가 흐르면서 변화였다.<sup>48</sup>

편지의 다른 부분과 비교 한다면 이 기원문의 형식이 가장 심한 변화를 겪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의 근원적 형태 해당하는 프톨레미시대의 기원문은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sup>49</sup> 이 형태는 4 세기나 되는 오랜 기간 사용되었지만, 주후 1세기부터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2세기부터는 새로운 형식의 짧은 기원문이 등장하였는데, 이 형태가 기독교편지들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원문이 되었다: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주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PSI X 1161, 3-5. 이 형태 외에 2세기부터 Proskynema-Formel 이라는 또 다른 형태가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기독교 외의 이교도들의 편지에서 발견된다.<sup>50</sup> 예외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기독교편지에서도 나타날 때도 있다; τὸ προσκύνημά σου ποιῶ καθ' ἑκάστην ἡμέραν παρὰ τῷ δεσπότῃ θεῷ ὅπως ὀλόκληρόν σε ἀπολάβω (나는 당신을 강건하게 만나기 위해서 매일 마다 주 하나님께 당신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P. Oxy. XIV 1775, 3-5.

• 고대 기독교편지의 기원문의 구조

빈 도	건강을 비는 기도문의 구조	
15/53	εὐχομαι	부정사구
8/53		분사구
8/53		전치사구
5/53		ὅπως 나 ἴνα 와 함께 한 부문장
5/53		목적어구
9/53	기타: προσαγορεύω-Formel (6) / Proskynema-Formel (3)	

예) εὐχομαι + 부정사구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καὶ ὀλοκληρεῖ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καὶ ὀλοκλη|ρεῖ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1299, 3-4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ὀλο|κληρεῖν καὶ ὑγιαίνει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 θεῷ P.Oxy. 1493, 3-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ὀλοκληρεῖν | καὶ ὑγιαίνει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1678, 2-3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 εὐχομαι ὑμᾶς ὀλοκλη|ρεῖ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Oxy. 2601, 3-5
- [τ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ὀλοκλη|[ρε]ῖ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Princ. 73, 3-4

<sup>48</sup> Ziemann, 302ff.

<sup>49</sup> εἰ αὐτός τε ἔρρωσαι καὶ οὐς αὐτὸς βούλει, εἴη ἂν ὡς αὐτὸς θέλω. ὑγίαινον δὲ καὶ αὐτός (PSI VI 610, 1-2). 참조, Buzón, 9, “Die formula valetudinis initialis besteht aus zwei Teilen: einer hypothetischen Periode, die in der Regel vorangeht und in der sich der Absender auf den Adressaten bezieht, und einem mit dieser durch die Partikel δέ koordinierten unabhängigen Satz, in dem der Absender von sich selbst spricht.”; Koskeniemi, 131f.

<sup>50</sup>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ειν καὶ τὸ προσκύνημά σου ποιῶ καθ' ἑκάστην ἡμέρα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Σαράπιδι. (BGU III 775, 2-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 σε ὑγιαίνειν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SI X 1161, 3-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 [ὑγιαίνειν κ]αὶ ὄλο[κληρεῖ]ν παρὰ | [τῷ κυρ]ίῳ θεῷ PSI 1423, 3-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ί σε ὄλοκληρεῖν | παρὰ τῷ κυρίῳ θεῷ P.Mich. 221, 3-4

## εὐχομαι + 분사구

εὐχομαί σε ὑγιαίνουσας καὶ εὐθυμοῦσας ἀπολαβεῖν:

- πρὸ παντὸς εὐχομαι τῷ θ(ε)ῷ ὑγιαίνουσάν | σε καὶ εὐθυμοῦσας ἀπολαβεῖν τὰ παρ' ἐμοῦ | γράμματα P.Bour. 25, 4-6
- [εὐ]χομαι ὑ[γιαίν]οντ[ί σοι κ]αὶ εὐθυμοῦντι | δ[ο]θῆναι [τὰ γ]ράμ-μα[τ]α P.Herm. 5, 3-4
- προηγουμένως εὐχομαι | ἐν ταῖς προσευχαῖς μου ὑμᾶ(ς) | ἀπολαβεῖν .....ω( ) ὑγιαίνο(ν)|τας καὶ εὐθυμοῦντας ἀπολαβεῖν δια....εντα P.Neph. 18, 5-9
- πρὸ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τῷ θεῷ ὑγιαίνοντί σοι | καὶ εὐθυμοῦντι ἀποδοθῆναι τὰ παρ' ἐμοῦ γράμματα P.NYU I 25, 3-4

## εὐχομαι + 전치사구

- πρὸ τῶ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τῷ | θ(ε)ῷ περὶ τῆς σωτηρίας σου P.Abinn. 8, 3-4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 [εὐ]χομαι τῷ ἐν ὑψίσ[τ]ῳ θεῷ περὶ | [τῆς] ὄλοκληρίας σου P.Iand. 14, 2-4
- πρὸ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τῷ θε[ῷ] περὶ τῆς ὄλοκληρίας ὑμῶν P.Iand. 100, 4-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 τῷ θεῷ περὶ τῆς σ[ῆ]ς | ὄλ[οκλ]ηρ[ί]ας ὑ[γιαίν]ο[υ]σ[αν] | ἀπολαβεῖν P.Lund. II 4, 3-6
- πρὸ παντὸς εὐχομαι τῷ κυρίῳ θεῷ περὶ τῆς ὄλοκληρίας σου καὶ τῶν | φιλάτων σου P.Oxy. 1298, 3-6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τὸν παντοκράτορα θεὸν τὰ περὶ τῆς ὑγείας σου | καὶ ὄλοκληρίας σου χάριν BGU 948, 3-5
-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 [εὐ]χο[μ]αι τῷ ὑψίστῳ Θεῷ | καὶ τῇ θεῖα προνοίᾳ τοῦ Κυρίου |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νυκτὸς | [κ]αὶ ἡμέρας περὶ τῆς ὄλοκλη[ρί]ας | [ὑ]μῶν ἅμα τ[ῆ] γλυκυτάτη μου | ἀδελφῆ Θεβ[η]ς SB 9605, 2-8

반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첫인사 이후에 수신자의 건강을 비는 헬레니즘 시대의 편지들에 자주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은 발견되지 않고, 대신에 은총과 평강을 비는 기원(χάρις-form)이 일관적으로 등장한다: 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헬라어 문장에서 자주 εἰμί 동사가 생략되는데 이 기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형태의 첫인사 후 기원문이 등장하는 요한 이서에서는 유일하게 동사가 생략이 되지 않았다.<sup>51</sup>

바울의 기원문이 일반 기독교편지의 기원문 형식과 다른 점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발견되지만 그 목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반 편지들의 기원문이 받는

<sup>51</sup> 요이 1장 3절: ἔσται μεθ' ἡμῶν χάρις ἔλεος εἰρήνη παρὰ θεοῦ πατρὸς καὶ παρ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υἱοῦ τοῦ πατρὸς ἐν ἀληθείᾳ καὶ ἀγάπῃ.

수신자의 화복에 기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바울의 서신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수신자의 평안과 은총을 기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바울의 경향은 본문 외의 편지의 여러 부분에서 자주 발견되어진다.

### 4.3. 개별적 인사

편지의 내용과 목적을 담은 본문 후에 고대 기독교편지에서 독특한 개별인사가 등장한다. 고대 서신학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던 Ziemann 은 이를 “*salutatio in fine epistularum*(편지 끝의 인사)”로 명하였다. 고대 편지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인사는 그 형태상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ἀσπάζομαι-Form 과 προσαγορεύω-Form 이다. 이 인사의 형식을 통해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반복하여 인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인사의 폭을 수신자 한 사람 뿐 아니라 수신자의 가족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넓히고 있다. 인사의 주체도 발신자 외에 다른 제 삼자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전반에 등장하는 ἀσπάζομαι-Form 에서 발견할 수 있다.

ἀσπάζομαι τὸν δεῖνα κτλ.: „내가 누구 누구에게 문안한다“ 가 이 개별적 인사의 기본형태이다. 때때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사, προσαγορεύειν 이 사용될 때도 있으나<sup>52</sup> 바울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독교편지 가운데 ἀσπάζομαι 는 때로는 다양한 명령 형태로 발견되지만 빈번하지는 않다: ἄσπαζε (P.Oxy. LIX 3998, 32), ἄσπασον (P.Oxy. LV 3816, 15), ἀσπαζόμεθα (P. Neph. 1, 26), ἄσπασαι (P.Oxy. XXXI 2603, 30; P.Merton II 93, 33). 반면 바울서신에서는 명령형(ἀσπάσασθε)이 자주 발견된다.

고대 기독교편지에서 개별인사에서는 부사구 혹은 전치사구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ἐν κυρίῳ θεῷ (P.Köln II 109, 22)<sup>53</sup>; ἐν κυρίῳ (P.Giss. I 55, 14; SB I 2266, 24); ἐν εἰρήνῃ (P.Oxy. XVII 2156, 23). 부사어로는 πολλά 와 그 최상급인 πλεῖστα 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반면 바울서신에서는 로마서 16장 만 살펴보다도 많은 수의 부사구가 등장한다: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v. 3); ἐν Χριστῷ (v. 7, 9, 10); ἐν κυρίῳ (v. 8, 11b, 12a, 12b, 13, 22). 그러므로 바울의 개별인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문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고대 기독교편지에서도 개별인사는 보통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로마서 16장 처럼 대규모로 사용된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

#### •개별적 인사의 구조(다른 사람을 향한 인사)

빈도	개별적 인사의 구조	
36	ἀσπάζομαι	τὸν δεῖνα
7	προσαγορεύω	
4	προσαγορεύομεν	
8	προσαγόρευε	

<sup>52</sup> Tibiletti, *Espressioni di saluto*, 59f.

<sup>53</sup> ἀσπάζομαι πάντας τοὺς ἀδελφοὺς ἐν κυρίῳ θεῷ.

예) ἀσπάζομαι τὸν δεῖνα:

- ἀσπάζομαι τὸν πατέρα ἡμῶν, τοῦτό ἐστιν σόν, ἄδελφε P.Oxy. 1593, 16
- ἀσπάζομαι Βαρύ P.Oxy. 1593, 17
- ἀσπάζομαι Σαραπίωνα P.Oxy. 1593, 17
- ἀσπ[άζ]ο[μ]αι τὰς ἀδελφ[ά]ς μου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Βαρ- P.Oxy. 1678, 18-27  
βα|ρείωνα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μου Ἑράκλειαν | καὶ Εὐτέρπειν καὶ  
τὰ τέκνα αὐτῆς καὶ Ἄν|νειν καὶ τὰ τέκνα αὐτῆς καὶ Εἶσιν καὶ  
Εὐτυ|χεῖν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μου Σωφρόνειν | καὶ Νεῖλον καὶ Πυμέ-  
νειν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 ἡμῶν Χοοῦν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ἡμῶν καὶ |  
Ἄφοῦν καὶ τὸν ἀδελφὸν αὐτοῦ καὶ τὰς ἀδελ|φὰς αὐτοῦ
- ἀσ[π]άζομαι τὸν κύρι[όν] μου [ἀδελφόν] P.SI 299, 21-22
- ἀσπάζομαι | τὸν κύριόν μου πατέρα SB 10840, 29-30
- ἀσπάζομαι Ἀπίν|χιον, Ἐγώτεος καὶ ἅπα Μακάριον P.Köln 109, 21-22
- [ἀσπ]άζ[ομα]ι ὑμᾶς P.Mich. 216, 36
- ἀσπάζομαι τοὺς ἀγαπητοὺς | καὶ τοὺς φιλοῦντας τὸν | λόγον τοῦ P.Herm. 9, 16-20  
Θεοῦ | τοῦ κυρί[ο]υ μου
- π|ροηγού|μ[ένως πολλά σ]ε ἀσπάζο|μα[ι] καὶ τὸν ἀδ|ελφόν σου | P.Giss. 103,  
Ἰέ|ρακα πάντω|ς. / ἀσπάζομαι πολλὰ τὸν | ἀδελφ[ὸ]ν Σινέα καὶ  
τὸν | υ[ιὸ]ν α[ὐ]τοῦ καὶ Ταχοῦ|μ[ι]ν τὴν ἀδελφὴν αὐ|[το]ῦ μετὰ  
τῶν τέκνων | αὐτῆς  
ἀσπάζομαί σε | μετὰ τῶν τέκνων σου  
• ἀσπάζομαι | [ ... ] πολλὰ καὶ Ἑ[λ]ι|οδώραν | [ ... ] τέκν[ ... ] P.Mich. 221, 17-18  
P.Mich. 219, 26-28

#### • 개별적 인사의 구조(다른 사람의 인사)

빈도	개별적 인사의 구조	
7	ἀσπάζεται σε	ὁ δεῖνος
6	ἀσπάζονται σε	οἱ δεῖνες
4	προσαγορεύει σε	ὁ δεῖνος
3	προσαγορεύουσί σε	οἱ δεῖνες

예) ἀσπάζεται σε ὁ δεῖνος

- ἀσπάζεται σε πολλὰ | [ῆ] ἀδελφή σου καὶ τὰ παιδιά ἡμῶν | [κ]αὶ P.Herm. 5, 22-24  
πάντ[ε]ς οἱ κατὰ τὸν οἶκον ἡμῶν
- ἀσπάζεται | ὑμᾶς Πιτίμιω[ς κ]αὶ Ε[. . .]ωρος καὶ Παῦ|λος καὶ P.Köln. 109,  
Εἰακῶ. / ἀσπά<ζε>ται ὑμᾶς | Πιβήχιος ὁ ἀδελφὸς Παπνου|θίου 7-9 / 16-18
- ἀσπάζεται σε δὲ καὶ ὄλος ὁ οἶκός | μου P.Lond.1926, 25-26
- Πουήρις ἀσπάζεται ὑμᾶς πάντας P.Neph. 18, 28
- πολλά σε ἀσπάζεται Αὐρήλιος καὶ τὸν | κύριόν μου ἀδελφὸν P.Oxy. 2156, 21-23  
Ἑρμείνον καὶ Λέοντα | καὶ τοὺς ἡμῶν πάντας ἐν εἰρήνῃ
- ἀσπάζεται ὑμᾶς ὁ κύριός μου | πατὴρ καὶ ἡ μήτηρ PSI 299, 19-20
- ὑμᾶς πολλὰ | [ἀσπάζεται Κ]οπρέας αὐτός SB 9605, 24-25

<sup>54</sup> Diese Grußformel steht in P.Köln. 109, 7-9; P.Oxy. 1299, 4-5 direkt dach dem Eingangsgruß als Erweiterung.

#### 4.4. 끝인사

편지의 처음에 등장하는 첫인사와 같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끝인사도 고대 편지에서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끝인사에는 ῥώννυμαι 의 완료형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사도행전 15:23-29 에 나와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Ἐρωσθε 라는 끝인사를 발견한다. 이집트 프톨레미시대에는 예외적으로 εὐτύχει 가 주로 사무적 편지들에서 끝인사로 사용되었으며,<sup>55</sup> 그러나 개인편지들인 경우 역시 완료 명령형인 ἔρωσο 가 사용되었다.

주후 1세기 이후에는 끝인사가 편지의 첫인사 이후에 나오는 건강의 기원문의 형태와 유사하게 변형되었다: ἔρρω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이 형태는 3, 4세기 끝인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4세기 기독교편지에는 전혀 새로운 끝인사의 형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ἔρρωμένην σε ὁ κύριος διαφυλάττοι (주께서 당신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소서) P.Bour. 25, 16-17.<sup>56</sup> 4세기 이후의 기독교편지에서는 때때로 일관된 형식을 따르지 않는 일탈된 인사들이 발견되기도 하며, 어떤 편지들에서는 단지 ἔρωσο 로 끝인사를 대신하기도 한다.<sup>57</sup>

#### • 고대 기독교편지의 끝인사의 구조

빈도	끝인사의 구조				
80/98	ἔρρωσθαί σε	ἐν κυρίῳ	εὐχομαι	πολλοῖς χρόνοις	κύριέ μου
13/98	ἔρρωμένον σε	(주어) <sup>58</sup> διαφυλάττοι			ἀγαπητὲ πᾶτερ
5/98	ἔρωσο				

예) ἔρρω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ἐν κυρίῳ:

- ἔρρω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 ἐν κ(υρί)ῳ P.Got. 11, 8-9
- ἔρρωσθαί σε | ἐν κ(υρί)ῳ εὐχο|μαι P.Heid. 407, 15-17
- ἔρρωσθαί | σε εὐχομαι ὀλοκλή|[ρω]ς ἐν κ(υρί)ῳ P.Bas. 16, 19-21

ἔρρω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ἐν κυρίῳ ἀγαπητὲ ἀδελφε:

- ἔρρωσθαί σε | εὐχομαι, | ἀγαπητὲ | ἀδελφε ἐν κ(υρί)ῳ P.Alex. 29, 12-15
- ἔρρωσθαί σε | ἐν κ(υρί)ῳ εὐχομαι | ἀγαπητὲ καὶ | ποθεινότατε πᾶτερ P.Giss. 55, 15-19
- ἔρρωσθαί σε | ἐν κ(υρί)ῳ | εὐχομαι | κ[ύριε ἀ]δ[ελ]φέ (ed.) P.Laur. 190, 13-16
- ἔρρωσθαί σε ὑμᾶς | ἐν κ(υρί)ῳ εὐχομαι, | ἀγαπητοὶ ἀδελφοί P.Oxy. 3857, 14-16
- ἔρρω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ἐν κ(υρί)ῳ, | ἀγαπητὲ ἀδελ(φε) PSI 1041, 15-17

<sup>55</sup> H. Koskeniemi, *Studien zur Idee und Phraseologie des griechischen Briefes bis 400 n. Chr.*, Annales Academiae Scientiarum Fennicae ser. B 102, 2, Helsinki 1956, 151; Ziemann, *De clausula*, 334ff; Tibiletti, 62f.

<sup>56</sup> Naldini, 14f.

<sup>57</sup> Exler, 69f.

<sup>58</sup> ὁ θεός 혹은 ἡ θεία πρόνοια 가 주어로 등장.

ἐρρώ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ἐν κυρίῳ πολλοῖς χρόνοις:

- ἐρρώσθαι | ὑμᾶς εὐχομαι πολλοῖς χρόνοις ἐν κ(υρί)ῳ P.Giss. 54, 19-20
- ἐρρώσθαί σε ἐν κ(υρί)ῳ | εὐχομαι τέκνον | ἀγαπητὲ πολλοῖς | χρόνοις P.Giss. 103, 24-27
- ἐρρώσθαί [σ]ε ἐν κ(υρί)ῳ πολλοῖς εὐχομαι | χρόνοις, κύριέ μου P.Lond.1925, 22-23
- ἐρρ[ῶσθαί σε] | ἐν κ(υρί)ῳ [εὐχομαι] | πολλο[ῖς χρόνοις,] | ἀγαπ-η[τὲ πάτερ.] P.Neph. 13, 16-19

ἐρρώσθαί σε εὐχόμεθα ἐν κ(υρί)ῳ:

- ἐρρώσθαί σε ἐν κ(υρί)ῳ | εὐχόμεθα, ἀγαπη|τὲ πάπα P.Oxy. 2785, 13-15
- ἐ[ρ]ρῶσθα[ι] | ὑμ[ᾶ]ς εὐχόμεθα ἐν κ(υρί)ῳ SB 7269, 3-4

ἐρρώ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ἐν θεῷ (ἐν κυρίῳ θεῷ):

- ἐρρώσθαί σε εὐχομαι | ἐν κ(υρί)ῳ θ(ε)ῷ P.Grenf. 73, 21-22
- ἐρρώσθαί σε | ἐν θ(ε)ῷ εὐχομαι PSI 208, 11-12
- ἐρρώσθαί σε, | κύριε ἄδελφε, | ἐν θεῷ πόλλοις | χρόνοις εὐχομαι P.Vindob.Sijp. 26, 21-24

반면 사도 바울의 끝인사는 고대의 편지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대의 끝인사에서 발견되는 ῥώννυμαι 의 완료형이 바울서신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끝인사에 완료형태가 쓰이는 이유는 편지라는 문학적 양식이 가지는 독특한 시간적 차이, 즉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차이 때문이다. 편지의 발신자는 여기서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게되는 완료의 시점으로 인사를 하고있다. 곧 편지의 수신자가 편지를 받게되는 시점까지 안녕하셨기를 소망하는 인사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러한 완료적인 상투적 인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바울서신에서 발견되는 끝인사는 다양하다. 사실 어떤 곳에서는 생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끝인사가 와야 할 부분에 송영(doxology)이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바울의 끝인사는 은혜가 수신자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원에 그 특징이 있다.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서신은 성도들을 향한 은혜의 기원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다.

## 5. 나가는 말: 고대 기독편지의 재구성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인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던 편지들의 모델을 재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이 편지는 고대의 가족 사이에서 주고 받았던 문안편지를 허구적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가족 간의 편지들은 주로 발신자가 먼 여행을 떠나 있을 경우, 특별히 건강의 문제나 재정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필요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고받게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각각 파울로스와 마리아로 고대 기독교 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이름들이다.<sup>59</sup> 파울로스는 먼 타국 땅에서 여행 중이며 편지를 통해 가족들을 문안하고 있다.

<sup>59</sup> Kim, 66f.

이 편지의 구조적 구성은 첫인사, 건강을 비는 기원, 편지내용, 개별적 인사, 끝인사의 다섯 구분으로 하였다. 각각의 부분들을 이루는 문장들도 고대 기독교편지들에서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 L. 1-2 첫인사
- L. 2-5 건강을 비는 기원
- L. 5-14 편지내용
- L.14-18 개별적 인사
- L. 18-20 끝인사(διαφυλάττω-Fom으로 연결)

τῇ ἀγαπητῇ συμβίῳ Μαρία Παῦλος  
 ἐν Κ(υρίῳ) χαίρειν. πρὸ μὲν πάντων  
 εὐχομαι τῷ θεῷ ὑγιαίνουσάν σε καὶ  
 5 εὐθυμοῦσαν ἀπολαβεῖν τὰ παρ' ἐμοῦ  
 γράμματα. μὴ ὀκνήσης, ἀγαπητή, γρά-  
 φειν μοι περὶ τῆς ὑγείας σου, ἣν μέλλω  
 προθύμως ἀκούειν. μὴ οὖν ἀμελήσης  
 πέμψαι μοι τὸ ἱμάτιον καὶ τὰ βιβλία  
 10 μάλιστα δὲ τὰς μεμβράνας<sup>60</sup>. καλῶς ἂν  
 ποιήσεις ἐπιμελεῖσθαι τῶν τέκνων ἡμῶν.  
 μνημόνευέ μου ἐν ταῖς εὐχαῖς σου, ἵν'  
 ἐπακούσῃ ὁ θεὸς τῶν εὐχῶν σου καὶ  
 15 γένηταί μοι ὁδὸς εὐθεία. πολλά σε ἀσπά-  
 ζομαι καὶ τὸν ἀδελφόν σου. ἀσπάζο-  
 μαί πάντας ἐν τῇ οἰκίᾳ κατ' ὄνομα. πολλά  
 σε ἀσπάζεται Ἀπολλώνιος καὶ πάντας τοὺς  
 ἡμῶν ἐν εἰρήνῃ. ἐρρωμένην σε καὶ εὐχο-  
 20 μένην ὑπὲρ ἡμῶν ὁ θεὸς διαφυλάξῃ,  
 ἀγαπητή.  
 Verso:  
 ἀπ(όδος) τῇ ἀγαπητῇ συμβίῳ Μαρία παρὰ Παύλου

• 번역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파울로스가 문안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이 편지를 건강하고 즐거운 가운데 받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내게 편지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당신으로부터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겉옷과 양피지에 쓰여진 책들을 내게 보내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어, 내가 끝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과 당신의 형제에게 전심으로 문안하고,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문안합니다. 아폴로니오스가 당신과 당신과 함께 한 이들을 평안 가운데 전심으로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건강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Verso: 이 편지를 파울로스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전하세요.

<sup>60</sup> cf. 딤후 4:13.